

防火符籍

음양

오행설은 고대 중국에서 생겨난 자연철학이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를 흔히 미신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陰陽五行은 음양과 오행의 합성어로서, 陰陽의 음은 본래 산의 북쪽을, 양은 산의 남쪽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그런 연유로 세상사의 명과 암, 소극과 적극, 마이너스와 플러스 등의 대비를 나타내기도 한다. 五行이란, 우주 만물을 형성하는 5종의 원소인 火, 水, 木, 金, 土를 말하며, 그 생성의 변화에 따라 生과 剋 즉, 相生說과 相剋說로 구분하여 쓴다. 한방 의학이 곧 이 생극의 이치를 기본으로 한 것으로써, 목은 금에게 제압되고, 금은 화에게, 화는 수에게, 수는 토에게 그리고 토는 다시 목에게 제압되는 상극, 또는 그 반대인 상생의 원리를 인체의 각 부위에 적용한 것이다.

이와같이 음양과 오행은 별도의 개념이지만, 대개 이 둘을 합하여 사물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쓰여왔다.


음양오행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현대인에게 거의 같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민속중에 부적을 들 수 있다. 符籍이란 불교 또는 도교 등의 민간 신앙에서 악귀와 잡신을 쫓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써, 글씨 모양의 이상한 그림을 종이에 그려 몸에 지니거나 집에 붙이는 것이다. 부적에는 대개 붉은색이 사용되는데 이는 암흑, 공포, 병귀를 물리치는 광명의 상징인 불이 붉은색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적을 지니는 목적이 보통은 현세의 행복과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기능으로써는 화재방을 위한 것도 있다. 이를 火災豫防符라고 하며, 일반 부적과 달리 검은색을 사용한다. 즉, 물 水자를 검은 글씨로 써서 불을 사용하는 장소에 거꾸로 붙이는 것인데, 이는 書經에 “陽인 불은 위를 태우고 陰인 물은 아래를 적신다”는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보 제1호인 남대문의 현판 崇禮門은 그 글이 세로로 쓰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崇자를 예서로 쓰면 불꽃이 타오르는 현상이요, 禮는 오행설로 따져 불(火)이 되므로 불이 잘 타오르게 하기 위하여 세로로 써 붙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서울 풍수에서 관악산은 火山이기에 그 불로부터 서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은 불로 막는다는 -소위 맞불을 붙이다는- 뜻으로 관악산이 보이는 승례문 현판을 그렇게 세웠다는 것이다.

보물 제1호인 동대문의 현판은 興仁之門 4자를 가로 두 줄로 썼다. 승례문에서 之자가 생략된 것은 세로쓰기에 4자가 너무 많아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외에, 양(火)에 세다는 음(水)의 극수가 3인 까닭으로도 생각된다.

개화기 때 한옥의 문기둥이나 처마 밑에, 개구리를 말려 걸어둔 것을 본 외국인이 한국사람도 개구리를 먹는다고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오해였다. 물에서 사는 개구리를 집안에 걸어두면 불이 나지 않는다는 防火符籍으로서의 개구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대형 재해가 피리를 무는 요즘음, 앞만 보고 달리는 현대인에게 -어울리고 말고는 뒤로 하고- 문명의 상징 컴퓨터가 그려낸 安全符籍이라도 몸에 지니도록 권해야 하는 것은 아닐런지... 

(金 東 一 / 위험관리정보센터 과장)